

大椎穴에 대한 文獻的 考察

이준무¹ · 김상운²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¹경혈학교실, ²침구학교실

Inspecting and Analyzing Documentary Record about Taech'u Acupoint(GV14)

Joon-Moo Lee¹, Sang-Woon Kim²

Dept. of ¹Meridian & Acupoint, ²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nlarge the range of treating which understanding taech'u acupoint(GV14) can be applied to by inspecting and analyzing documentary records about taech'u acupoint(GV14).

Method :

Various contents about taech'u acupoint(GV14) can be inquired into through investing and analyzing 41 kinds of documentary records ranging from old books to contemporary materials.

Results :

1. The spot of taech'u acupoint(GV14) is under the process of the 7th cervical vertebral.

2. Taech'u acupoint(GV14) can be found in two positions which can be posturized by a patient. One is a position in which a patient lies on his/her face. The other is a position in which a patient sits up straight with his/her head bent.

3. The depth of acupuncture can be varied from 3 puns to 2 chons.

4. The amount of moxa can be varied from 3 jangs to 60 jangs.

5. To treat through taech'u acupoint(GV14) can lower fever, relieve a state of oversensitiveness, and let vitality flow.

Conclusions : The range of treating through taech'u acupoint(GV14) can be chronic wasting diseases, neuropsychotic diseases, feverish diseases, respiratory diseases, and diseases which can be around taech'u acupoint(GV14).

Key words : taech'u acupoint(GV14)

I. 緒 論

經絡이란 人體氣血이 運行하는 通路이니 經脈과 絡脈 兩部分을 包含하는데 그중에서 直行幹線을 經脈이라 하고 經脈에서 分出되어 全身

의 各部位를 網羅한 分支를 絡脈이라 한다¹⁾.

經脈의 主要한 것으로는 十二經脈, 十二經別 및 奇經八脈의 三種類가 있다. 絡脈의 主要한 것으로는 十五絡脈 · 絡脈 · 孫絡 · 浮絡 및 血絡 등이 있다²⁾.

· 교신저자: 이준무,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60,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Tel. 033-730-0662, Fax. 033-743-9051, E-mail : jmlee@mail.ac.kr

督脈은 奇經八脈의 하나로 主行路線은 會陰部에서 비롯되어 뒤로 向하여 脊柱內를 따라서

· 접수 : 2005/02/15 · 수정 : 2005/03/12 · 채택 : 2005/03/22

위로 風府穴에 이르러 腦에 들어가고 위로 頭頂에 行하고 額·鼻柱를 따라서 上齒에 이른다¹⁾. 全身의 陽을 統攝하고, 左右兩腎에 絡屬하고 命門에 連系하여 人身의 元氣를 維系하며 督脈循行은 “上額與足厥陰交于顛 入絡于腦”라고 하였으니 故로 腦와 肝에 病이 있으면 督脈經上을 좇아서 表現이 나타난다²⁾.

大椎穴은 督脈의 14번째의 經穴로 최초의 기록은 黃帝內經에 나타나있고 이후 각 文獻에서 大椎穴의 위치, 효능, 主治 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大椎穴의 응용범위를 넓혀 다양한 실험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저자는 大椎穴에 관한 조사를 통해 大椎穴을 임상에서 다양하게 응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아래와 같이 보고하는 바이다.

Ⅱ. 調查資料 및 方法

黃帝內經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침구 경혈학 관련서적 중 大椎穴의 위치와 효능, 시술 방법, 주치증 등이 기재된 국내외 문헌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각각의 문헌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요약하였다.

Ⅲ. 本 論

1. 精校黃帝內經素問³⁾

督脈氣所發者, 二十八穴. 項中央, 二. 髮際後中, 八. 面中, 三. 大椎以下至鳩尾及旁, 十五穴. 至骶下, 凡二十一節脊椎法也.

2. 鍼灸甲乙經校釋⁴⁾

大椎, 在第一椎上陷者中, 三陽督脈之會. 刺入五分, 灸九壯.

3. 鍼灸資生經⁵⁾

在第一椎上陷者宛宛中. 鍼五分. 留三呼. 瀉五吸. 灸以年爲壯. 甲乙云, 大椎下至尾骶骨二十一椎. 長三尺. 折量取俞穴. 既曰大椎. 又曰在第一椎上陷中. 必是二穴. 非二穴則不言第一椎上矣. 此大椎第一椎所以異也. 但銅人云, 大椎在第一椎上陷中. 諸經皆同. 惟明堂下經云在第一椎下. 陶道穴既在第一椎下. 不應大椎亦在第一椎下. 必是下經誤寫上字作下字也. 考之下經. 亦言陶道穴在大椎節下. 與銅人合. 足見其誤寫上字作下無疑矣.

4. 扁鵲神應鍼灸玉龍經⁶⁾

在脊骨第一椎上, 陷者, 宛宛中. 人髮不明者, 從此穴上行三寸. 針五分; 灸以年爲壯.

5. 新校編註醫學入門(上)⁷⁾

一 大杼 一椎上平肩節中 針五分 灸七壯 至四十九壯止 主五勞七傷 溫瘧 瘵瘧 瘵 背膊悶 項強不得回顧 傷寒熱盛 煩嘔 風勞 食氣 已上背部中行每節 岐骨空中 俱俛而取之.

6. 鍼灸大成⁸⁾

一椎上, 陷者宛宛中. 手足三陽, 督脈之會. <銅人>鍼五分, 留三呼, 瀉五吸 灸以年爲壯. 主肺脹脇滿, 嘔吐上氣, 五勞七傷, 乏力, 溫瘧瘵瘧, 氣注背膊拘急, 頸項強不得回顧, 風勞食氣, 骨熱, 前板齒燥. 仲景曰: 太陽與少陽并病, 頸項強痛或眩冒, 時如結胸, 心下痞硬者, 當刺大椎第一間.

7. 東醫寶鑑⁹⁾

大顛一穴 在項後, 第一顛上, 陷中. 鍼入五分留三呼, 瀉五吸, 若灸隨年爲壯.<銅人>

○凡灸顛骨, 當灸骨節突處方驗, 灸節下當骨,

則無驗，以魚肉骨參之，其言爲可信，盍依其言當骨節，灸之？<資生>
○ 頤皆作節，下皆作外.<入門>

8. 類經圖翼¹⁰⁾

一名百勞 在第一椎上陷者中. 一曰平肩
○ 手足三陽督脈之會.
○ 刺五分. 留五呼. 灸五壯. 一云以年爲壯.
○ 大椎爲骨會. 骨病者可灸之. 主治五勞七傷乏力. 風勞食氣. 痲瘡久不愈. 肺脹脅萬. 嘔吐上氣. 背膊救急. 項頸強不得回顧.
○ 一云能瀉胸中之熱. 及諸熱氣. 若灸寒熱之法. 先大椎次長強. 以年爲壯數.
○ 一云治身痛寒熱風氣痛.
○ 一云治衄血不止. 灸二三十壯. 斷根不發. 千金云. 凡瘡有不可差者. 從未發前灸大椎至發時滿百壯. 無不差.
○ 又云諸煩熱時氣溫病. 灸大椎百壯. 刺三分寫之.
○ 又治氣短不語. 灸隨年壯.
○ 又治頸癭. 灸百壯. 及大椎兩邊相去各一寸半少垂下. 各三十壯.
玉龍賦云. 百勞止虛汗.
神農經云. 治小兒急慢驚風.
寶太師治諸虛寒熱灸此.
捷經云治熱不止肩.
時傳以此治百病.

9. 針方六集校釋¹¹⁾

大椎一穴，一名百勞. 在第一椎上陷者中，手足三陽，督脈之會. <鍼經>: 刺入五分，灸九壯.

10. 臨床經絡腧穴學¹²⁾

(1) 出典：素問氣府論

意義：第七頸椎 棘突起의 뒤어 나온 모습 이 다른 脊椎뼈에 비하여 높고 큰데, 穴이 그 아래에 있기에 大椎라 이름하였다.

- (2) 異名：大全에는 百勞이다.
- (3) 部位：第七頸椎 棘突起 아래 오목한 곳이다.
- (4) 主治：頭痛, 身熱, 瘧疾, 急性熱病, 胸脇脹滿, 肩背痛, 骨蒸潮熱, 頸項強痛, 腰脊痛, 痺症, 痿症, 咳嗽哮喘, 小兒驚風, 憂鬱症, 暑病, 黃疸, 癱瘓, 濕疹.

11. 精解鍼灸學¹³⁾

手足三陽, 督脈之會

- (1) 異名：百勞
- (2) 部位：第1胸椎上 古書 第1椎上 第7頸椎下 陶道穴上(第7頸椎 및 第1胸椎棘突間).
- (3) 取穴：第1胸椎와 第7頸椎間에 大椎穴(百勞穴)을 取하고 大椎穴(百勞穴) 兩傍 各 2寸에 肩中俞穴이 있다. 大椎穴(百勞穴)과 肩中俞穴은 橫列線으로 取한다.
- (4) 鍼刺深度：5mm 灸 3-15壯, 溫灸 15-30分, 留 5呼(類經), 留 3呼(銅人)
- (5) 鍼灸：鍼：5分-2寸(斜刺), 灸：5-10壯, 溫灸：15-30分.
- (6) 主治：急性熱病, 間歇熱, 精神分裂症, 瘧疾, 感冒, 頸無力, 脊椎痛, 癲癇, 氣管支炎, 咳嗽, 脊背強痛, 腰背部에 鎮痛 및 鍼麻醉 常用穴.

12. 鍼灸經穴學¹⁴⁾

一名百勞, 手足三陽脈督脈之會.

- (1) 位置：一, 金鑑：一椎之上. 二, 大成：一椎上, 陷者宛宛中.
- (2) 體表定位：在第七頸椎與第一胸椎棘突之間, 俯首時, 項後隆起最高且能左右轉動者

爲大椎，於其骨下定穴。

- (3) 取穴：在第七頸椎與第一胸椎棘突陷中俯伏取之，約與肩相平。
- (4) 操作：(角度)斜刺，從背側面略向上刺入。(深度)針五分。(灸量)灸三-十五壯;溫灸十五-三十分鐘
- (5) 鍼感：以局部痠脹或熱或涼感向下，向上及向兩肩部放散。
- (6) 穴性：疏三陽表邪，通一身陽氣，清心定神，肅肺調氣。
- (7) 主治：各家載述。傷寒熱甚煩嘔，瘧疾，寒熱，咳嗽，肺脹脇痛，項強，背膊拘急，癲癇，喉痹，大氣滿喘，僵仆不能久立，五勞七傷，風勞食氣，小兒急慢驚風，虛汗，骨蒸勞熱。

13. 最新鍼灸學¹⁵⁾

- (1) 位置：第7頸椎와 第1胸椎棘突起의 中央
- (2) 效能：解表通陽，清腦寧神。
- (3) 主治：發熱，中暑，瘧疾，精神分裂症，癲癇，氣管支炎，哮喘，肺結核，肺氣腫，肝炎，血液疾患，濕疹，癱瘓，肩背痛 등。
- (4) 操作方法：鍼法：直刺로 약간 斜上方으로 向해 1-1.5寸 刺入한다。
- (5) 灸法：灸 3-7壯. 溫灸로 5-15分間.

14. 原色鍼灸穴位解剖圖譜¹⁶⁾

- (1) 位置：第七頸椎와 第一胸椎棘突起의 사이.
- (2) 操作：直刺하거나, 약간 上方으로 0.5-1寸의 깊이로 斜刺한다. 또한 三稜針으로 點刺하여 出血시킬 수도 있다.
- (3) 主治：發熱，瘧疾，感冒，咳嗽，喘息，骨蒸潮熱，蕁麻疹，項強，背部強直，癲狂等의 病症. 이밖에도 豫防, 保健과 強壯하는 作用이 있다.

15. 圖解 臨床取穴-五俞穴¹⁷⁾

- (1) 穴位：제1흉추 上
一椎上陷者宛宛中 [大成]
在項後第一顛上陷中 [銅人]
- (2) 取穴
앞드리거나 앉은 자세로 取穴한다. 고개를 숙일 때 목뒤에 가장 튀어나오는 뼈가 제7경추이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제7경추와 제1흉추가 엇비슷하거나, 혹은 제1흉추가 더 커 보이는 경우가 있다. 즉 애매한 경우가 많다. 이때는 고개를 좌우로 돌려보아, 움직이는 것이 제7경추이고 안 움직이는 것이 제1흉추이다. 처음에는 이것이 움직이는 것인지 안 움직이는 것인지 구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때는 전혀 안 움직인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제1흉추이다. 제7경추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헛갈릴 경우에 쓰는 방법이다. 大椎는 제7흉추의 극돌기 밑에 있다. 穴의 입구 모양은 보통 둥근 편이다. 손으로 穴을 헤치고 들어가면 痛症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16. 針灸集錦¹⁸⁾

- (1) 位部：俯伏取穴. 在第七頸椎與第一胸椎之間凹陷中.
- (2) 血釋：大, 高大; 椎, 脊椎. 此穴在最大的第七頸椎與第一胸椎之間, 故名大椎.
- (3) 鍼灸：直刺 3-5分; 灸 5-15分鐘.
- (4) 功能：清熱散風, 扶正祛邪.
- (5) 主治：瘧疾, 外感, 熱病汗不出, 咽痛, 咳嗽, 哮喘, 頭痛, 項強, 胸痛, 嘔吐, 脊背拘急, 癲癇, 癩病, 黃疸, 暑病, 軟骨病, 貧血, 神經衰弱, 毛囊炎, 視網膜出血, 小兒驚風,

小兒麻痺後遺症等.

17. 침뜸치료의 묘리¹⁹⁾

7경추와 1흉추 사이점이다. 망상내피계통의 기능을 향진시키는 작용이 있어 널리 알려진 경혈이다. 감기, 기관지염, 기관지천식, 학질 등에 특효이다. 침은 直刺하는데 등골으로 한뼘 정도 뻗는 득기감이 있어야 적중한 것으로 된다. 20-30분 정도 류침하는 방법으로 두어 번 침을 놓으면 기침이 딱 멎는다. 침을 뺀 다음 반드시 침자 국소에서 한두방울의 피를 뽑아야 한다. 그러면 감기침은 잘 낫는다.

18. 經穴學叢書²⁰⁾

- (1) 位置 : 第7頸椎와 第1胸椎棘突起間의 中央
- (2) 取穴 : 坐位로 取穴한다. 頸을 앞으로 구부릴 때 最上位에 등글게 돌출한 뼈가 나타나다. 이것이 第7頸椎棘突起이며 그 直下의 第1胸椎棘突起間에 생기는 陷凹部에서 大椎를 取穴한다.
- (3) 效能 : 解表通陽, 清腦寧神.
- (4) 主治 : 發熱, 中暑, 瘧疾, 精神分裂症, 癲癇, 氣管支炎, 哮喘, 肺結核, 肺氣腫, 肝炎, 血液疾患, 濕疹, 癱瘓, 肩背痛 등.
- (5) 治法 : 鍼法 : 直刺, 약간 斜上方으로 向해 1-1.5寸 刺入한다.
- (6) 灸法 : 灸 3-7壯. 溫灸 5-15分間.

19. 신천임상침법²¹⁾

- (1) 취혈 : 똑바로 앉은 자세로 項背部 後正中線上에서 취혈한다. 제7경추와 제1흉추 극돌기간 함요처에서 취혈한다. 양쪽 肩峰尖을 연결한 선 상의 중점을 취혈한다.

兩 肩中俞의 중점이다.

- (2) 설명 및 임상응용 : 大椎란 ‘척추(椎)가 크다(大)’는 의미이다. 간염에는 대추에 뜬을 떠라. 반신불수, 수족병에 필수혈이다. 특히 수병에 특효가 있다. 구토나 비출혈의 지혈에 효과가 있다. 학질에 쓴다. 5-60장 뜬다.

20. 鍼灸經穴解說²²⁾

- (1) 部位 : 第7頸椎棘突起와 第一胸椎棘上突起사이 陷中에 在함.
- (2) 取穴 : 正坐하야 大椎上 一節위의 陷中에 取한다.
- (3) 主治 : 慢性感冒, 間歇熱, 肺氣腫, 衄血, 嘔吐, 黃疸, 精神病, 頸項強痛, 咽頭痛, 腦膜炎, 腦溢血 등

21. 中國鍼灸學²³⁾

一名百勞. 大腸經, 三焦經, 小腸經, 胃經, 膀胱經, 膽經, 督脈集會의 會穴.

- (1) 穴位 : 在第七頸椎與第一胸椎棘突之間.
- (2) 取穴 : 正坐俯首, 於第七頸椎棘突下取之.
- (3) 鍼灸 : 鍼五分深. 溫灸半小時, 或粒灸三至十五壯.
- (4) 操作方法 : 斜刺. 從背側面畧向上方刺進.
- (5) 主治 : 感冒, 瘧疾(間歇熱), 肺脹脇滿(肺氣腫), 五勞七傷(肺結核), 衄血, 嘔吐, 黃疸, 小兒疳, 癲癇, 熱病. 驚風, 疔瘡, 對口疽, 項強, 黃疸.

22. 鍼灸學²⁴⁾

- (1) 位置 : 在第七頸椎, 與第一胸椎棘突間正中處
- (2) 效能 : 解表通陽, 清腦寧神.

(3) 主治：發熱，中暑，瘧疾，精神分裂症，癲癇，氣管支炎，哮喘，肺結核，肺氣腫，肝炎，血液病，濕疹，癱瘓，肩背痛等。

(4) 操作：鍼法：直刺，微斜向上 1-1.5寸。
灸量：灸 3-7壯。溫灸로 5-15分間。

23. 鍼灸穴名釋義²⁵⁾

大，巨大。椎，脊椎。第七頸椎爲椎體中之最大者，穴在其下，故名。

24. 鍼灸學²⁶⁾

- (1) 定位：第七頸椎棘突下。
- (2) 主治：熱病，感冒，瘧疾，咳嗽，氣喘，癲癇，風疹，項背強痛。
- (3) 刺灸法：直刺 0.5-1寸。

25. 鍼灸腧穴圖譜(修訂版)²⁷⁾

- (1) 部位：在第七頸椎與第一胸椎棘突間，棘上及棘間韌帶處，即當第一椎節之上陷中。
- (2) 取穴：正頭俯頭，當平肩正中點，即第七頸椎與第一胸椎棘突間陷中取之。
- (3) 主治：五勞七傷，骨蒸盜汗，瘧瘧，肺脹喘咳，頸項強痛，不得回顧，背膊拘急。
- (4) 鍼灸法：鍼 3-5分 灸 5-10壯。

26. 鍼灸大辭典²⁸⁾

經穴名。出<素問氣府論>。屬督脈，爲督脈，手足三陽經交會穴。別名百勞，大槌，大顛，大杼。本穴位于第一胸椎之上，第七頸椎之下。第七項椎乃椎骨中最高大者，俗稱第一大椎骨，穴在其下，故名。“大椎，穴在一椎上陷宛宛中，平肩取之。爲頸後平肩第一大椎骨，從大椎而下，依次類推，故名大椎(<會元鍼灸學>)。”第七頸椎棘突下是穴。有腰背筋膜，棘上韌帶及棘間韌帶。有棘突間皮下靜

脈叢，第八頸神經後支及第一胸神經後支之內側支。主治頭項強痛，瘧疾，熱病，癲癇，骨蒸盜汗，咳嗽，氣喘。向上斜刺五分至一寸。灸三至十五壯。
<增訂銅人腧穴鍼灸圖經>：“療五勞七傷，溫瘧瘧瘧，氣疰背膊拘急，頸項強不得回顧，風勞食氣。”

27. 中國鍼灸大全²⁹⁾

- (1) 位置：第一胸椎棘突上陷凹處
- (2) 功能：清熱解毒，解表通陽，鎮靜安神，肅肺調氣
- (3) 主治：高熱，瘧疾，驚風，咳嗽

28. 中國鍼灸大全³⁰⁾

- (1) 出處：素問·氣府論篇
- (2) 命名與別名：<經穴釋義匯解>“穴在第一椎上凹陷處，因其椎骨最大，故名大椎。”本穴又名百勞(<大全>)，上杼(<循經考穴編>)
- (3) 定位與取穴：<甲乙>“在第一椎上陷者中。”即在第七頸椎棘突下凹陷中。俯首時，項下隆起最高，且能左右轉動的椎骨爲第七頸椎，于其椎下定穴，正坐俯首取之。
- (4) 主治：熱病，瘧疾，咳嗽，氣喘，骨蒸盜汗，癲癇，頭痛，項強，風疹，感冒，瘧病。
- (5) 刺灸：①向上斜刺0.5-1寸。局部有鍼感。②以70°角左右從椎間孔隙正中進鍼，鍼尖稍向下壓進，進鍼1.5寸。鍼感沿督脈向腰背部放射。③以70°角左右進鍼，鍼向患側上肢刺入1.5寸。鍼感即可到患處。④以80°角左右進鍼1寸，鍼尖向下壓進。鍼感可直送下肢。艾炷灸 5-10壯；溫灸10-20分鐘。
- (6) 文獻：①<素問·骨空論篇>：“灸寒熱之法，先灸項大椎，以年爲壯數，次灸膈骨，以年爲壯數。”②<傷寒論>：“太陽與少陽并病，頭項強痛，或眩暈，時如結胸，心下痞硬者，當刺大椎第一間，肺俞，肝俞。”③<千金>

卷三十：“若脊强反折，灸大椎，并灸諸臟俞及督脊當中，……十日完可灸三壯，一月以上可灸五壯。”

29. 實用六解穴位辭典³¹⁾

- (1) 釋名別名：本穴位于第一胸椎之上，第七頸椎之下。第七頸椎乃椎骨中最高大者，俗稱第一大椎骨，穴在其下，故名大椎。〈會元鍼灸學〉：“大椎，在一椎上陷宛宛中，平肩取之。爲項後平肩第一大椎骨，從大椎而下，以次類推，故名大椎。”別名百勞，上杼。
- (2) 位置：在第一椎上陷者中。
- (3) 取穴：俯伏，第七頸椎與第一胸椎棘突之間，約與肩相平。
- (4) 功能：解表清熱，疏風散寒，通陽理氣，清心定神。
- (5) 主治：頭痛，急性熱病，感冒多汗，瘧疾，骨蒸勞熱，咳嗽，哮喘，痿證，項強，胸背痛，癲狂痲證，小兒急，漫驚風，蕁麻疹，小兒舞蹈證，還有强身防病作用。
- (6) 鍼法：直刺，鍼五分至一寸。
- (7) 灸法：灸3-15壯。
- (8) 拔罐療法：治頭頸強痛。取大椎，用三稜鍼刺出血後拔罐。

30. 鍼灸三十講³²⁾

- (1) 取穴法：正坐低頭位，于第七頸椎(即摸取頸後突起最高的一介棘突，能隨病人頭頸轉動而活動的爲第七頸椎)與第一胸椎棘突間取之。
- (2) 功能：解表清熱，消風散邪，通陽理氣，清心定神。
- (3) 主治：感冒發熱，頭項強痛，瘧疾，癲癇，癲狂，咳嗽，氣喘，骨蒸盜汗，五勞虛損。
- (4) 操作：斜刺0.5-1.0寸。

- (5) 參考資料：鍼刺本穴治療精神病亦有較好效果，一般可採用22-24号鍼，鍼尖向上稍斜刺，進鍼1.5-2寸左右，患者有觸電或惊跳感即出鍼，若無鍼感可再深2-3毫米，不留鍼，不提插，捻轉。

31. 組鍼刺三節治偏癱³³⁾

- (1) 位置：在第一椎上陷者中。(〈甲乙〉)
- (2) 取穴：第七頸椎與第一胸椎棘突之間，俯伏取之，約與肩相平。
- (3) 主治：偏癱。頸軟俯首，頸硬難顧，肩臂不舉，疼痛，寒涼，顫抖，腫痛，脊背痛，熱病，瘧疾，感冒，骨蒸潮熱，咳嗽，癲癇。
- (4) 刺灸：直刺5分，艾灸5-15分鐘。

32. 鍼灸速成臨證歌要³⁴⁾

- (1) 交會：手足三陽經
- (2) 位置：第7頸椎與第一胸椎棘突間(平肩)
- (3) 鍼灸法：向上斜刺 0.5-1寸 灸 3-5壯
- (4) 主治：一切熱病，骨蒸盜汗，瘧疾，感冒，咳嗽，氣喘，風疹，腦炎後遺症，白細胞減少，血液病，癲疾

33. 腧穴學³⁵⁾

- (1) 定位：俯伏坐位。在後正中線上，第七頸椎棘突下凹陷中。
- (2) 刺灸法：斜刺0.5-1寸；可灸。
- (3) 主治：頸項強直，角弓反張，肩頸疼痛，肺脹脇滿，咳嗽喘急，瘧疾，風疹，癲狂，小兒驚風，黃疸。頸肩部肌肉痙攣，頸椎病，落枕，感冒，瘧疾，小兒麻痺後遺症，小兒舞蹈病。
- (4) 研究進展：①感冒 取大椎穴，行散刺再拔罐。可用隔薑灸大椎3-5壯，或艾條灸20分鐘，每日2-3次 ②蕁麻疹 取大椎穴，行強刺

激, 留鍼5分鐘. ③座瘡 用三稜鍼點刺或梅花針叩刺數下, 然後拔火罐, 以出血爲度. ④哮喘 配肺俞, 着膚癢痕灸7-9壯, 隔日1次, 3次1療程.

34. 單穴治病選萃³⁶⁾

- (1) 取穴：俯伏或正坐低頭, 于第七頸椎棘突下凹陷中取穴.
- (2) 主治：①外感頭痛, 發熱, 惡寒 ②頭痛, 眩暈 ③高血壓 ④喉痹 ⑤多發性癰腫, 麥粒腫及座瘡, 上口脣腫脹 ⑥陽虛畏寒 ⑦瘧疾 ⑧失眠
- (3) 刺灸法：梅花針；直刺, 向兩側斜刺；點刺放血；拔罐
- (4) 治療經驗：用梅花針, 三稜鍼或數枚毫鍼點刺大椎穴後用閃火法拔罐, 留罐 15-20分鐘, 兒童留罐 15分鐘.

35. 備急鍼灸³⁷⁾

- (1) 定位：第七頸椎棘突下
- (2) 主治：熱病, 項強, 咳嗽, 氣喘, 瘧疾, 癰疽

36. 中醫鍼灸經穴集成³⁸⁾

- (1) 出處：出<素問氣府論>中. 別稱百勞(<大全>), 上杼(<循經考穴編>).
- (2) 穴名：大有高起, 開始之意. 穴在第一椎凹陷處, 是處脊椎較其它脊骨稍大高起, 因名大椎.
 - ① <甲乙經>謂“在第一椎陷者中, 三陽督脈之會.”
 - ② <理解>謂“大椎, 椎骨之最大者也.”
 - ③ <會元>謂“大椎, 在第一椎上陷宛宛中, 平肩取之. 爲項後平肩第一大椎骨, 從大椎而下, 以次類推, 故名大椎.”

(3) 定位：在第七頸椎棘突下.

- ① <甲乙經>：“在第一椎陷者中.”
- ② <聖惠方>：“在項第一椎下陷者中.”

- (4) 取法：仆臥或正坐, 于後正中線上, 第七頸椎棘突下凹陷中取之.
- (5) 功能：疏風解表, 清熱通陽, 截瘧止痛.
- (6) 主治：頭痛項強, 熱病, 瘧疾, 感冒, 咳嗽, 氣喘, 癰疽, 骨蒸潮熱.
- (7) 刺灸：向上斜刺0.5-1寸, 可灸.

37. 鍼灸特定穴的理論與臨床³⁹⁾

- (1) 別名：百勞<玉龍經>；上杼<循經考穴編>.
- (2) 出處：<素問氣府論>：“灸寒熱之法, 先灸項大椎, 以年爲壯數.”
- (3) 穴名釋義：<經穴釋義匯解>“大椎穴在第一椎上凹陷處, 因其椎骨最大, 故名大椎.”
- (4) 類屬：手, 足三陽經與督脈之會<銅人腧穴鍼灸圖經>. 三陽, 督脈之會<鍼灸甲乙經>.
- (5) 定位：在後正中線上, 第七頸椎棘突下凹陷中.
- (6) 功效：疏內解表, 清解裏熱.
- (7) 主治：外感疾患：發熱惡寒, 頭項強痛, 肩背痛, 風疹. 感冒.
胸肺疾患：肺脹脇滿, 咳嗽喘急. 支氣管炎, 肺結核, 支氣管哮喘.
心神疾患：癲狂, 小兒驚風. 神經衰弱, 精神分裂症.
本經脈循行所過部位的疾患：頸項強直, 角弓反張, 肩頸疼痛. 頸椎病, 落枕, 小兒麻痺後遺症, 小兒舞蹈病
- (8) 操作：正坐低頭或俯臥位取之. 斜刺0.5-1寸, 局部酸麻脹或向上, 向下及肩部放散. (1) 向上斜刺0.5-1寸. 局部有鍼感. (2) 以70°角左右從椎間孔隙正中進鍼, 鍼尖稍向下壓

進, 進鍼1.5寸. 鍼感沿督脈向腰背部放射.
(3)以70°角左右進鍼, 鍼向患側上肢刺入1.5寸. 鍼感即可到患處. (4)以80°角左右進鍼1寸, 鍼尖向下壓進. 鍼感可直送下肢. 可灸.

38. 鍼灸學⁴⁰⁾

- (1) 定位：在後中線上, 第7頸椎棘突下凹陷中.
- (2) 主治：熱病, 瘧疾, 咳嗽, 氣喘, 骨蒸盜汗, 癲癩, 頭痛項強, 肩背痛, 腰脊強痛, 風疹.
- (3) 操作：直刺0.5-1寸；可灸.

39. 經穴臨床應用⁴¹⁾

- (1) 出處：〈素問氣府論〉.
- (2) 別名：大杼, 百勞, 大槓, 大焦頁
- (3) 歸經：屬督脈, 爲督脈, 手足三陽經交會穴.
- (4) 穴名解：本穴位于第1胸椎之上, 第7頸椎之下. 第7頸椎乃爲椎骨中最高大者, 俗稱第一大椎骨, 穴在其下, 故名.
- (5) 取穴法：在頸下部, 後正中線上, 第7頸椎棘突下凹陷中, 正坐低頭或俯伏位取之.
- (6) 刺灸法：向上斜刺 1.65-3.3厘米；直刺不可過深；灸3-15壯
- (7) 臨床應用：①大椎之點刺加火罐治療感冒. ②艾灸大椎治療哮喘. ③鍼大椎治療高血壓病.

40. 中醫鍼灸臨床實踐⁴²⁾

- (1) 名稱解釋：第7頸椎爲大椎, 穴處其下, 故名.
- (2) 定位：俯伏坐位, 後正中線上, 當第7頸椎棘突下凹陷中.
- (3) 取穴：搖頭時, 上椎轉動, 下椎不轉動, 此兩椎之間.

- (4) 刺灸法：低頭, 刺入骨縫中1-1.2寸；可灸, 或鍼上加灸.
- (5) 功用：解表通陽, 清腦定神.
- (6) 主治：感冒發熱, 頸項強痛, 瘧疾, 頸椎病, 截癱. 腦軟化.
- (7) ①〈續名醫類案〉：“立齋曰：予丙子年忽惡心, 大椎骨甚痒, 須臾臂不能舉, 神思甚倦, 此天疽危病也. 急隔蒜灸之, 痒愈甚, 又明灸五十壯, 痒遂止.” ②〈新中醫〉：治感冒73例, 先用三稜鍼點刺大椎穴局部2-3下, 隨即拔火罐, 以出血爲度, 留罐5-10分鐘. ③〈江蘇中醫雜誌〉：灸大椎治感冒24例, 21例效. 一般灸2-3天, 每次3-5壯, 每天2-3次.

41. 鍼灸鎮痛機制與臨床⁴³⁾

- (1) 功效：解表祛風, 瀉熱止痛.
- (2) 主治痛症：一切項背痛, 肩膊急, 歷節酸痛, 身痛寒熱風氣痛, 頸項強痛或眩暈等.
- (3) 治痛文獻選粹：①〈傷寒論〉：“太陽與少陽并病, 頭項強痛或眩暈, 時如結胸, 心下痞硬者, 當刺大椎第一間.” “太陽與少陽并病, 心下硬, 頸項強而眩者, 當刺大椎.” ②〈千金翼方〉：“冷痺, 脛膝疼, 灸大椎可三百壯.”

IV. 考 察

大椎穴은 督脈氣所發하는 穴로 제7頸椎의 아래에 있는데, 大는 高大¹⁸⁾ 또는 巨大²⁵⁾, 椎는 脊椎를 말하며, 제7頸椎의 棘突起는 椎骨중 가장 높고 크므로 大椎라 불린다. 大椎穴의 異名은 類經圖翼等에서는 百勞^{10-13,23,30,31,38,39,41)}라 하였고, 中國鍼灸大全等에서는 上杼^{30,31,38,39)}라 하였고, 鍼灸大辭典等에서는 大杼, 大槓^{28,41)}라 하였으며, 大顛²⁸⁾, 大焦頁⁴¹⁾이라고도 하였다. 대체로 百勞라는 異名이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大椎

穴은 手三陽經, 足三陽經과 督脈이 만나는 곳이다. 鍼灸甲乙經校釋에서 三陽督脈之會⁴⁾라 표현하고 있고, 鍼灸大成 등에서 手足三陽督脈之會^{8,10,11,13,14)}로 나타나 있고, 中國鍼灸學에서는 大腸經, 三焦經, 小腸經, 胃經, 膀胱經, 膽經, 督脈集會의會穴²³⁾이라고 나타나 있다.

大椎穴의 위치는 고전문헌에서는 대체로 第一椎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鍼灸甲乙經校釋等에서는 第一椎上陷者中^{4,10,11,31,33)}이라 하였고, 鍼灸資生經等에서는 第一椎上陷者宛宛中^{5,6)}이라 하였다. 현대 문헌에서는 대체로 第7頸椎棘突起下^{12,26,37)} 또는 第7頸椎와 第1胸椎棘突之間^{14,16,23,27,32-34)}으로 표현하고 있다. 大椎穴의 穴位에 대해서는 표현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자리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大椎穴의 取穴방법은 俯伏^{14,31,33,35,36,41)}하여 肩相平^{14,31,33)}한 상태로 取穴하거나, 正坐^{22,23,35,38,41)}하여 俯首²³⁾, 俯頭²⁷⁾, 低頭^{36,41,42)}한 상태로 取穴함을 알 수 있었다. 위의 두 방법 중 환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取穴방법을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大椎穴을 刺鍼할 때의 방향은 直刺^{16,18,20,24,25,31,33,40)} 또는 斜刺^{13,14,16,23,32)}를 모두 사용하는데 直刺시에는 不可過深⁴¹⁾하라고 하였으며, 斜刺시에는 向上斜刺^{30,34,38,41)}인 경우가 많았다. 刺鍼의 깊이는 고전문헌에서는 대체로 五分^{4,6-8,10)}인 경우가 많았으나, 현대문헌에서는 精解鍼灸學¹³⁾에서 5分-2寸, 最新鍼灸學¹⁵⁾에서 1-1.5寸, 鍼灸集錦¹⁸⁾에서 3-5分 刺入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등 비교적 다양하다. 또한 留鍼시간은 鍼灸資生經等에서 留三呼^{5,8,9)}라 하였고, 類經圖翼에서는 留五呼¹⁰⁾라 하였다.

大椎穴의 灸法에 대해서는 歷代 文獻의 內容이 서로 달랐는데⁴⁴⁾ 鍼灸甲乙經校釋 等에서는 灸九壯^{4,11)}이라 하였고, 普濟方⁴⁵⁾에서는 一灸七壯

至七七壯罷라 하였고, 新校編註醫學入門⁷⁾에서도 灸七壯至四十九壯이라 하였다. 類經圖翼¹⁰⁾에서는 灸五壯, 精解鍼灸學¹³⁾에서는 5-10壯, 最新鍼灸學 等^{15,20)}에서는 3-7壯이라 하였고, 鍼灸資生經⁵⁾에서는 若灸以年爲壯이라 하였다. 이렇게 文獻마다 3-60壯까지 다양하게 灸法을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類經圖翼¹⁰⁾에서는 衄血不止에는 灸二三十壯, 諸煩熱時氣溫病에는 灸大椎百壯하는 등 병증에 따라 灸의 量을 달리 하는 경우도 있었다.

大椎穴을 이용한 치료방법으로는 鍼, 灸, 瀉血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먼저 瀉血療法을 살펴 보면 三稜鍼이나 梅花針으로 散刺하거나 叩刺하여 出血시키거나 또는 拔罐法을 사용하였다. 實用六經穴位辭典³¹⁾에서는 頭項強痛에 三稜鍼을 사용하여 出血시킨 후 拔罐한다고 하고, 腧穴學³⁵⁾에서는 感冒에 大椎穴에 散刺하고 다시 拔罐하여 치료하고, 瘰癧에 三稜鍼으로 點刺하거나 梅花針으로 叩刺한 후 拔火罐하여 出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 單穴治病選萃³⁶⁾에서는 전반적인 主治症에 梅花針을 사용하거나 點刺放血하거나 拔罐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침뜸치료의 묘리¹⁹⁾에서는 한두 방울의 피를 뽑아야 감기기침은 잘 낫는다 라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 灸法을 살펴보면 鍼灸鎮痛機制與臨床⁴³⁾에서는 “冷痺, 脛膝疼, 灸大椎可三百壯”이라 하였고, 中國鍼灸大全³⁰⁾에서는 “灸寒熱之法, 先灸項大椎, 以年爲壯數, 次灸樞骨, 以年爲壯數”라 하였고 또 “若脊強反折, 灸大椎, 并灸諸臟俞及督脊當中,十日完可灸三壯, 一月以上可灸五壯”이라 하였다. 經穴臨床應用⁴¹⁾에서는 “短氣不得語, 灸大椎隨年壯.” “羊癩之爲病, 喜扭目吐舌, 灸大椎上三壯.”이라 하여 灸法을 사용하였고, 哮喘에 艾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大椎穴의 鍼治療의 경우를 살펴보면 鍼灸鎮痛機制與臨床⁴³⁾에

서 “太陽與少陽并病，頭項強痛或眩暈，時如結胸，心下痞硬者，當刺大椎第一間。”이라 기록되어 있고, 經穴臨床應用⁴¹⁾에서 鍼大椎治療高血壓病이라 하였다. 이처럼 大椎穴은 鍼, 灸, 瀉血요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어떤 특정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瀉血요법을 써야한다든지 하는 패턴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다만 기본적으로 비교적 오래된 증이나 寒性증상에는 灸를 많이 사용하고, 熱性질환이나 急性질환에는 瀉血療法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大椎穴의 效能과 主治症을 살펴보면 각종 문헌에서 대체적으로 호흡기질환과 신경정신과적 질환, 열성질환, 만성소모성질환 그리고 大椎穴 주변부위의 통증질환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解表通陽^{15,20,24,29,42)}, 肅肺調氣^{14,29)}, 疏風^{31,32,38)} 등의 효능이 있으므로 肺脹脇滿^{10,23,35,39)}, 咳嗽^{12-14,16,18,26,31,32,37,38,40)}, 기관지염^{13,15,20)} 등의 호흡기 질환에 다용하고, 清腦寧神^{15,20,24)}, 清心定神^{14,31,32)}, 鎮靜安神²⁹⁾ 등의 효능이 있으므로 우울증¹²⁾, 정신분열증^{13,15,20,24)}, 癲癇^{14,15,23,24,37,40)}, 癲狂^{16,32)}, 癔病¹⁸⁾, 小兒急慢驚風^{14,31)} 등의 신경정신과적 질환에 다용되고 있었다. 또 清熱^{18,29,31,32,38)}, 清熱通陽³⁸⁾, 清解裏熱³⁹⁾ 등의 효능이 있으므로 痰癆^{7,8,10,27)}, 급성열병^{12,13,31)}, 發熱^{16,20,24,36)} 등으로 표현되는 열병에 다용하고, 五勞七傷^{7,8,10,14,27)}, 風勞食氣^{7,8,10,14)}, 骨蒸盜汗^{27,30,32,34,40)} 등의 오늘날의 폐결핵에 해당하는 만성소모성 질환에도 다용된다. 또한 督脈이 유주하는 부위와 大椎穴 주변부위의 통증질환들 즉 頸項強^{8,10,12,22,26,39,42,43)}, 背膊拘急^{8,10,14,27)} 등의 증상에도 다용되고 있었다. 종합해 보면 氣運을 소통시키고, 熱을 내리고 마음을 鎮靜시켜 인체를 安靜되게 하는 작용이 있다고 보여진다.

V. 結 論

大椎穴에 대한 黃帝內經이후 현대까지의 문헌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大椎穴의 穴位는 제7頸椎棘突起와 제1胸椎棘突起 사이의 凹陷中임을 알 수 있었다.
2. 大椎穴의 異名으로는 百勞, 上杼, 大杼, 大槓, 大焦頁으로 나타나 있었다.
3. 大椎穴의 取穴은 正坐俯首하거나 俯伏하여 肩相平하게 하여 取穴함을 알 수 있었다.
4. 大椎穴의 刺鍼의 방향과 깊이는 直刺 또는 向上斜刺로 3分-2寸까지로 다양하게 나타나 있었다.
5. 大椎穴에 대한 灸法은 3-60壯까지 다양하게 나타나 있었다.
6. 大椎穴의 작용이 解表通陽, 清腦寧神, 鎮靜安神, 清熱散風, 清熱解毒, 清解裏熱, 瀉熱止痛, 肅肺調氣 등으로 보아, 신경정신과 질환과 열성질환, 호흡기질환 등에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五勞七傷, 骨蒸盜汗, 痰癆, 肺脹喘咳, 頸項強痛, 不得回顧, 背膊拘急, 發熱, 中暑, 小兒急慢驚風, 정신분열증, 癲癇, 기관지염, 哮喘, 肺結核, 肺氣腫, 癱瘓, 구토, 衄血 등의 질환에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參 考 文 獻

1.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編譯. 한의학대사전 [기초이론편]. 서울 :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9 : 20, 74.
2. 침구경혈학교실 編著. 鍼灸學(上). 서울 : 집문당. 1998 : 59, 113.
3. 홍원식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 206.
4. 山東中醫學院. 鍼灸甲乙經校釋. 北京 : 人民衛

- 生出版社. 1979 : 343.
5. 王執中 著. 鍼灸資生經. 서울 : 일증사. 1991 : 23.
 6. 陳會, 王國瑞. 扁鵲神應鍼灸玉龍經. 서울 : 의성당. 1994 : 17.
 7. 李梴 編著. 新校編註醫學入門(上). 서울 : 대성문화사. 1994 : 174.
 8. 揚繼洲 著. 鍼灸大成. 북경 : 인민위생출판사. 1995 : 274.
 9. 許浚 原著. 東醫寶鑑. 서울 : 대성문화사. 1992 : 333.
 10. 張介賓 著. 類經圖翼. 서울 : 대성문화사. 1992 : 194.
 11. 吳崑 著. 針方六集校釋. 서울 : 의성당. 1993 : 120.
 12. 이학인, 김양식, 김연섭. 臨床經絡腧穴學. 서울 : 법인문화사. 2000 : 346.
 13. 최용태, 이수호 著. 精解鍼灸學. 서울 : 행림출판. 1985 : 583.
 14. 楊維傑 著. 鍼灸經穴學. 서울 : 일증사. 1991 : 586.
 15. 金賢濟의 編譯. 最新鍼灸學. 서울 : 성보사. 1991 : 202.
 16. 김창환 編著. 原色鍼灸穴位解剖圖譜. 서울 : 대성문화사. 1985 : 155-6.
 17. 김택률 오현주 공저. 圖解 臨床取穴-五俞穴. 경기 : 전국의학사. 2003 : 444-5.
 18. 鄭魁山 編著. 針灸集錦. 서울 : 의성당. 1994 : 193.
 19. 지만석. 침뜸치료의 묘리. 평양 : 의과학출판사. 1995 : 194-5.
 20. 安榮基 編著. 經絡학총서. 서울 : 성보사. 1986 : 650-1.
 21. 백동진 著. 신천임상침법. 서울 : 정담. 2004 : 47-8.
 22. 천정록 著. 鍼灸經穴解說. 서울 : 행림출판. 1989 : 205.
 23. 莊育民 著. 中國鍼灸學. 香港 : 上海印書館. 1976 : 242-3.
 24. 상해중의학원 編. 鍼灸學. 북경 : 인민위생출판사. 1977 : 152.
 25. 黃時泰, 張載義 譯. 鍼灸穴名釋義. 合肥 :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85 : 120.
 26. 廣州中醫學院 主編. 鍼灸學. 북경 : 中醫古籍出版社. 1987 : 88-9.
 27. 陸瘦燕 朱汝功 著. 鍼灸腧穴圖譜(修訂版). 상해 : 상해과학기술출판사. 1988 : 105.
 28. 程寶書 主編. 鍼灸大辭典. 북경 : 북경과학기술출판사. 1988 : 41.
 29. 張奇文 主編. 中國鍼灸大全. 天津 :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3 : 281.
 30. 王雪苔 主編. 中國鍼灸大全. 하남 : 하남과학기술출판사. 1994 : 419-20.
 31. 漆浩 主編. 實用六解穴位辭典. 북경 : 북경출판사. 1994 : 12-3.
 32. 李道生等 編著. 鍼灸三十講. 북경 : 인민위생출판사. 1994 : 172-3.
 33. 韓華明等 著. 組鍼刺三節治偏癱. 북경 : 중국의약과기출판사. 1995 : 291.
 34. 杜云喜 著. 鍼灸速成臨證歌要. 북경 : 인민위생출판사. 1996 : 100.
 35. 羅永芬. 腧穴學. 상해 : 상해과학기술출판사. 1996 : 56-7
 36. 呂景山等 主編. 單穴治病選萃. 북경 : 인민위생출판사. 1996 : 342.
 37. 冉金麗, 郝海銘 主編. 備急鍼灸. 북경 : 인민위생출판사. 1997 : 607.
 38. 劉冠軍. 中醫鍼灸經穴集成. 江西南昌 : 강서과학기술출판사. 1997 : 536-7.
 39. 趙吉平, 王燕平 編著. 鍼灸特定穴的理論與臨

大椎穴에 대한 文獻的 考察

- 床. 북경 : 과학기술문헌출판사. 1998 : 422-3.
40. 孫國傑 主編. 鍼灸學. 상해 : 상해과학기술출판사. 1999 : 126.
41. 南景禎, 殷惠軍, 于春雷 主編. 經穴臨床應用. 하얼빈 : 흑룡강과학기술출판사. 1999 : 508-9.
42. 鼓榮暎, 趙立岩 主編. 中醫鍼灸臨床實踐. 貴陽 : 貴州과학기술출판사. 2001 : 22-3.
43. 張吉 主編. 鍼灸鎮痛機制與臨床. 북경 : 인민위생출판사. 2002 : 126.
44. 王德深 主編. 中國鍼灸穴位通鑿. 青島 : 青島出版社. 1994 : 228-34.
45. 朱櫛 主編. 普濟方 第 12卷. 서울 : 醫聖堂. 1993 : 176-77.